

아부다비(UAE),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

□ UAE의 아부다비(Abu Dhabi) 정부는 2019년 5월 7일 1억 4,600만 달러 규모의 가단(Ghadan) 벤처 펀드를 출범하는 등 최근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.

- 가단 벤처 펀드는 아부다비 정부가 2018년 9월에 발표한 136억 달러 규모의 국가 혁신계획인 ‘가단 21 프로그램’의 일환으로 아부다비 내 벤처캐피털 설립 및 투자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.¹⁾
- 아부다비 정부는 2019년 3월 24일 ‘아부다비 허브 71 프로그램’을 통해 기술창업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계획 및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.
 - 아부다비 정부는 국부펀드인 무바달라(Mubadala)를 통해 2.7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여 현지에 스타트업 설립 시 초기비용, 사무실 및 주거시설 등을 제공하고자 함.
- 이와 함께 2018년 4월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스타트업 종사 외국인에게 5년 거주 비자를 발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, 2019년 4월 비자 발급을 허용할 100대 스타트업 명단을 발표하였음.

□ 아부다비 정부는 최근 청년 실업문제 해결과 함께 비석유 부문 육성, 역내 최고의 혁신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 함.

- UAE 정부는 그동안 공공 부문 고용을 통해 자국인 실업 문제를 해결해 왔으나 국제유가 하락으로 정부 재정 수입이 감소하면서 민영화 및 각종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추가적인 공공 부문 고용 확대가 어려운 상황임.
- 반면 높은 인구 증가율 등으로 민간 부문 고용 창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, 유가 변동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석유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고자 기술창업을 통해 청년층 일자리를 늘리고 민간 부문도 발전시키고자 함.²⁾

1) UAE는 아부다비, 두바이, 샤르자, 아즈만, 움 알 콰인, 라스 알 카이마, 푸자이라 등 7개 에미리트로 구성된 연방국가로, 아부다비 통치자가 대통령, 두바이 통치자가 부통령 겸 총리직을 수행함. 외교·국방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에미리트 별로 담당함.

2) UAE에서 두바이 인구가 332만 명, 아부다비 323만 명이나, 두바이는 외국인 비중이 월등히 높고, 아부다비는 연방 정부와 아부다비 정부 및 공공 기관, 공기업이 밀집되어 두바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국인 비중이 높게 나타남.

- 2017년 기준 UAE의 20~29세 자국민 실업률은 26.4%이며, 최근 10년 (2009~2018) 평균 인구 증가율은 4.4%로 높아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 정권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부상 하였음.
- UAE 자국민은 육체노동을 기피하는 문화적 특성, 고임금 공공 부문에 대한 선호, 외국인 (2017년 기준 UAE 인구 940만 명 중 약 80% 차지) 중심의 민간 노동 시장 등을 이유로 민간 부문 종사를 대체로 꺼려함.
- 아부다비는 UAE 원유 생산의 95%를 담당하고 있으며, 아부다비 통치자가 대통령을 겸하는 등 UAE 경제 및 정치의 중심지이나 두바이에 비해 혁신성은 상당히 뒤처지고 있어 자국민 중심의 기술창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.
- 2018년 기준 500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한 혁신도시 지수에서 두바이가 33위로 역대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도시로 부상한 반면 아부다비는 69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차지함.

□ UAE는 향후 스타트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외국 기업 유치, 해외 스타트업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.

- 두바이에서 차량공유 업체인 카림(careem)과 같은 유니콘 기업이 등장하고 있으나 아부다비의 스타트업은 기술 관련 업종보다는 서비스 및 요식업 비중이 높아 해외 스타트업 및 강소기업 현지 유치를 위한 지원정책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전망됨.³⁾
- 아부다비의 국부펀드인 무바달라는 보건의료, 우주항공, 신재생에너지, ICT 등 첨단 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,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해외 스타트업 인수도 확대하고 있음.
- 그러나 아부다비의 스타트업 육성 정책이 지나치게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과잉 및 중복투자, 낮은 투자회수율 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민간 주도의 투자 확대를 통한 효율성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.

〈자료: World bank, Gulfnews.com, Bloomberg, 2Thinknow 등 참고〉

손성현 전문연구원

3)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을 의미함.